

제 325호 · 2015년 9월 23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글로벌 컨 선사, 수익은 감소했으나 이익률은 증가
2. 케냐, 몸바사-나이로비 간 표준궤 철도노선 2017년 운영 예정
3. SEASPAN, 중국수출입은행과의 금융 협력으로 컨테이너선 발주 지속 예상
4. DP World, 네덜란드에 신규 자동화 터미널 개장

물류시장동향

1. 아랍에미리트 샤르자항, 미 커내버럴항, 자매결연 체결
2. 홍콩, 중국 본토 항만들에 대해 경쟁력 약화

공지사항

1.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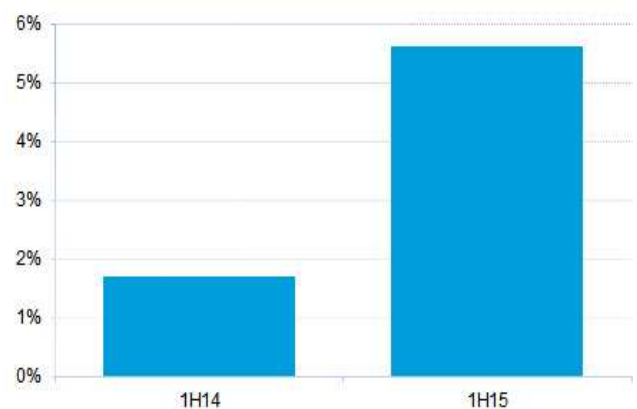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컨 선사, 수익은 감소했으나 이익률은 증가

- 주요 컨테이너선사의 수익이 지난 상반기 하락하였으나 이익은 낮은 연료유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
- 이 같은 분석은 글로벌 컨테이너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Drewry사가 지난 9월 20일자 주간리포트(Inshght Weekly)에서 밝힌 것으로 동 보고서는 소위 세계 20위 컨테이너선사 가운데 16개 선사를 분석하고 있음
- 이들 선사는 세계 컨테이너선대의 약 65%를 운영하고 있는 선사들로서 2015년 상반기 수익은 6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% 하락했음
- 모든 선사들의 수익이 감소한 반면, 대만의 Yang Ming과 Wan Hai만이 수익은 증가했음

< 세계 16대 선사의 수익 변화율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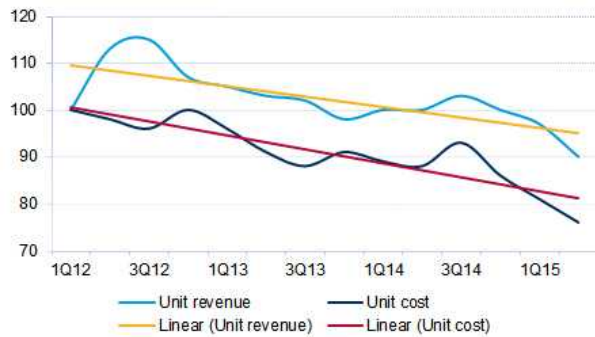


< 세계 16대 선사의 평균이익률(%) >



- 한편 연료유가 하락에 따라 선사들의 비용 감소가 운임의 하락 폭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익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
- Drewry에 따르면, 2015년 상반기 단위당 비용 하락율은 11%인 반면 전년 동기 대비 단위당 수익은 약 7%가 하락했음
- 각 선사들의 상세한 비용 절감분에 대해 정보가 많지는 않으나 Maersk Line은 지난 2015년 2분기 약 40%의 연료비를 아꼈으며, OOCL과 CSCL 또한 지난 상반기 비슷한 수준의 절감을 한 것으로 알려짐
- CMA CGM의 경우 지난 상반기 33%의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운항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

< 단위당 수익 및 비용 하락률(%) >



< CMA CGM의 운항비용 상세(%) >

	Y/Y % change	Share of total
Handling and stevedoring	6%	28%
Bunkers and consumables	-33%	16%
Chartering and slots purchases	9%	13%
Inland and feeder transportation	8%	13%
Container rentals and other logistic expenses	0%	9%
Port and canal	4%	8%
Employee benefits	-4%	8%
General and administrative & others	-6%	5%
Total operating expenses	-5%	100%

- Drewry는 최근 저운임 기조하에서도 연료유가 하락 또는 친환경 초대형선 운항에 따라 선사들의 수익성은 보전되고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선사들은 지속적인 비용절감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

자료 : Drewry, Container Insight Weekly, 2015.9.20.

김태일 부연구위원 (☎ 051-797-4609, ktizorro@kmi.re.kr)

□ 케냐, 몸바사-나이로비 간 표준궤 철도노선 2017년 운영 예정

- 인도양에 접하고 있는 케냐의 몸바사항과 수도인 나이로비간 표준궤 연결 철도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앞선 2017년 중반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
 - 케냐는 2015년 말까지 철로 부설 및 철교 고정에 이르기까지, 토목공사의 40%를 완료하고 2016년에 철로 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, 민간 운영회사를 2016년 중순까지 설립할 예정임
- 몸바사-나이로비 간 표준궤 공사는 2014년 5월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케냐를 방문하여 체결한 17개 경제협력안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음
 - 38억400만 달러 중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90%를, 나머지 10%는 케냐 정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며,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음
- 중국은 케냐에서 남수단까지 동아프리카 6개국을 잇는 총 길이 2,700km의 Standard Gauge Railway(SGR)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
 - 또한 중국은 케냐가 동아프리카의 핵심 환적항으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라무항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임
- 케냐는 몸바사-나이로비 간 표준궤 공사를 통해 이동 소요시간이 현재의 13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기존의 몸바사-나이로비 철로는 협궤를 이용하고 있으며, 과거 영국이 식민통치를 위해 1895년에 몸바사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1899년에 나이로비까지 연결되었음

< 중국의 동아프리카 철도건설 계획 >



자료 : www.reuters.com, 2015.9.11 / KOTRA 나이로비 무역관, 2014.6.9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jmsong@kmi.re.kr)

□ SEASPAN, 중국수출입은행과의 금융 협력으로 컨테이너선 발주 지속 예상

- Lloyd's List¹⁾에 따르면, 홍콩 기반의 비운항선주(non-operating shipowner)인 SEASPAN사는 중국수출입은행(CEXIM)과 3년간 10억 달러의 선박금융 지원 협력을 체결함
 - 중국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박을 신조하는 조건이며, CEXIM은 수출신용공여(export credit facility) 방식으로 SEASPAN사의 금융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선박금융을 지원함
 - SEASPAN사는 '11년 이후 중국 양쯔강조선소에서 25척의 1만 TEU급 컨테이너선박을 신조하면서, CEXIM과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각각 30억, 5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음
-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SEASPAN사의 '15년 2분기 영업이익이 8,1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음
 - CEO인 게리 왕(Gerry Wang)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최신의 대형 컨테이너선박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
 - 실제로 '14년 6척, '15년 상반기 5척, 총 11척의 컨테이너선박을 인수, 그 중 4척이 14,000TEU급, 7척이 10,000TEU급 선박임
- 클락슨에 따르면, SEASPAN사는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세계 최대 비운항선주로서, 선박 보유량이 현재 발주량을 포함하여 117척, 10,764,668톤(DWT)으로 세계 6위 수준임 ('15.9.22 검색 기준)
 - 컨테이너선 운항선주(operating shipowner)인 머스크, MSC, 에버그린, PIL, COSCO 다음으로 많은 컨테이너선박을 보유 및 발주하고 있음
 - 현재 발주되어 '17년까지 인도 예정인 19척의 컨테이너선박은 10,000TEU급 7척, 11,000급 5척, 14,000TEU급 7척으로 대부분 확장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자국 조선소 지원을 위한 중국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, 비운항 선주사의 선박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
 - 컨테이너선 시장은 공급과잉 속에서 지속적으로 초대형 신조선이 발주되나, 한국 조선소가 과점하던 과거와 달리 중국, 대만, 일본 등 조선소로 점차 분산되고 있음
 - 또한 선사 얼라이언스가 점차 집중화·대형화되면서 운항 선주들은 18,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, 비운항 선주인 SEASPAN사는 14,000TEU급 이하 선형에 집중하며 차별화된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음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5.9.20.

김은수 전문연구원 (☎051-797-4665, kes1213@kmi.re.kr)

1) Lloyd's List, "CEXIM offers Seaspan \$1 bn loan to place orders at China yards", 17 Sep 2015.

□ DP World, 네덜란드에 신규 자동화 터미널 개장

-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업체인 DP World와 조인트벤처(joint venture) 기업들(APL, HMM, MOL, CMA-CGM)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RWG(Rotterdam World Gateway)가 올해 9월 개장했음
 - 신규 터미널은 로테르담항만 북서쪽 간척공사를 통해 건설된 네덜란드 마스블락테 2 (Maasvlakte 2)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
- RWG 터미널은 자동화 장치 등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설계한 터미널로서,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
 - 약 240만TEU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CY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, 유럽 전역과 복합 운송체계로 연결되어 있음
 - 또한 원양 선박용 대형 크레인(deep-sea cranes) 11기, 바지/피더 크레인(barge/feeder cranes) 3기, 레일크레인(rail cranes) 2기, 자동화 야드천정크레인(stacking crane) 50기를 보유하고 있음
- RWG 터미널 종사자 수는 180여명이며, 자동화 및 혁신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 대부분 IT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
- 로테르담의 Ahmed Aboutale 시장은 “로테르담 항만은 글로벌 대표 항만으로서, ‘전 세계 화주 및 선사 유치’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RWG 터미널은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언급함
- 또한 DP World의 Sultan Ahmed Bin Sulayem 회장은 “RWG 터미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, 다양한 운송수단들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통해 터미널 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 줄 것”이라고 덧붙임



자료 : www.rwg.nl, 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9.1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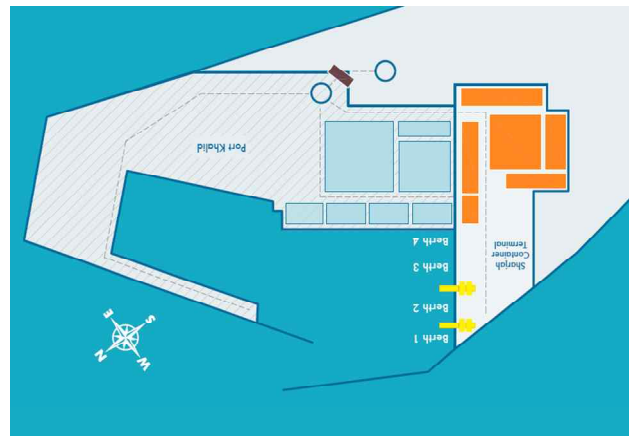
손보라 연구원 (☎ 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아랍에미리트 샤르자항, 미 커내버럴항, 자매결연 체결

- 2015년 9월, 아랍에미리트연방 샤르자(Sharjah) 항만공사와 미국 플로리다주 커내버럴(Canaveral) 항만공사는 자매결연을 맺음
 -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항만간은 경제, 자원, 국제 무역 및 물류 등을 개발하며, 상호이해 관계를 확장하고자 함
 - 또한 두 항만은 협업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며, 각각의 항만 지역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함
 - 커내버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Gulftainer사와 샤르자 항만공사는 상호발전 및 통상 확대를 위해 정보교환 및 지식, 기술, 문화 교류에 합의함
- * Gulftainer는 세계 굴지의 항만운영 및 물류회사로 샤르자, 아부다비 등에 항만 터미널을 운영중임
- 샤르자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방의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, 국가 경제발전 촉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항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함

< 샤르자 항만 >



자료 : transportinfrastructure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www.gulftainer.com

자료 : transportinfrastructure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9.15.

김은미 연구원 (☎ 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)

□ 홍콩, 중국 본토 항만들에 대해 경쟁력 약화

- 홍콩의 항만 물동량 감소 문제가 2015년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심각해짐
 - 홍콩의 항만부가 가장 최근 공개한 2015년 8월의 항만 물동량 수치는 TEUs로 계산하여 9.8% 감

소한 상태이며 홍콩에서 가장 큰 9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쿼칭 역시 9.7%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- 이러한 수치는 중국 경제의 침체를 반영한다기 보다 홍콩 항만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
- 홍콩의 물동량은 0.6%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3.3% 그리고 중국 본토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를 상승하고 있던 2012년에도 5.2% 감소했기 때문임
- 홍콩의 경쟁력 약화는 중국 본토의 다른 항만에 대해서임
 - 우선 선전의 수출업자들이 화물을 홍콩으로 운송하는 것이 중국 본토의 다른 가까운 항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임
 - 또한 본토의 항만들을 통한 환적화물의 직접 운송이 증가해 홍콩이 수십년간 의지해 온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통한 환적화물의 양이 줄기 시작했기 때문임
 - 중국 본토에 위치한 상해의 항공 허브로부터 유사한 위협이 있으나 홍콩은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활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
 - 만일 홍콩이 이와 같은 항만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항구의 능력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도 일종의 도시국가인 홍콩은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9.16.

김민경 연구원 (☎ 051-797-4777, mkkim421@kmi.re.kr)

<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>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**중소·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** 다음과 같이 **해외진출 상시 컨설팅**과 **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**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□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·센터·창고·항만·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·투자·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·지사·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·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 - 현지 경제·무역·인프라·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·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 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□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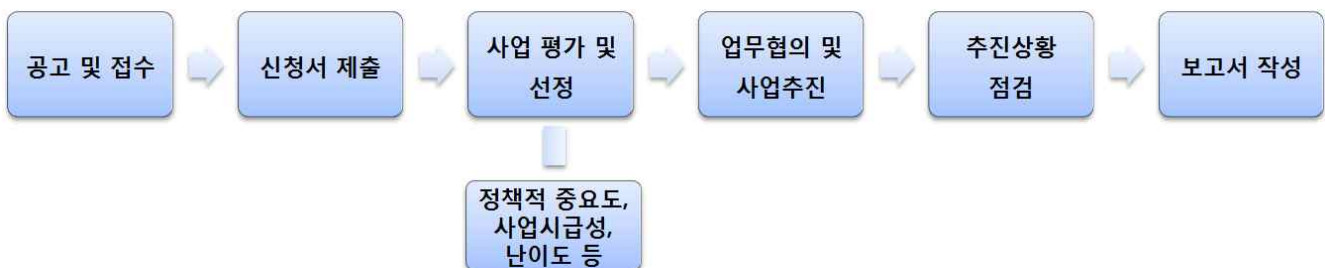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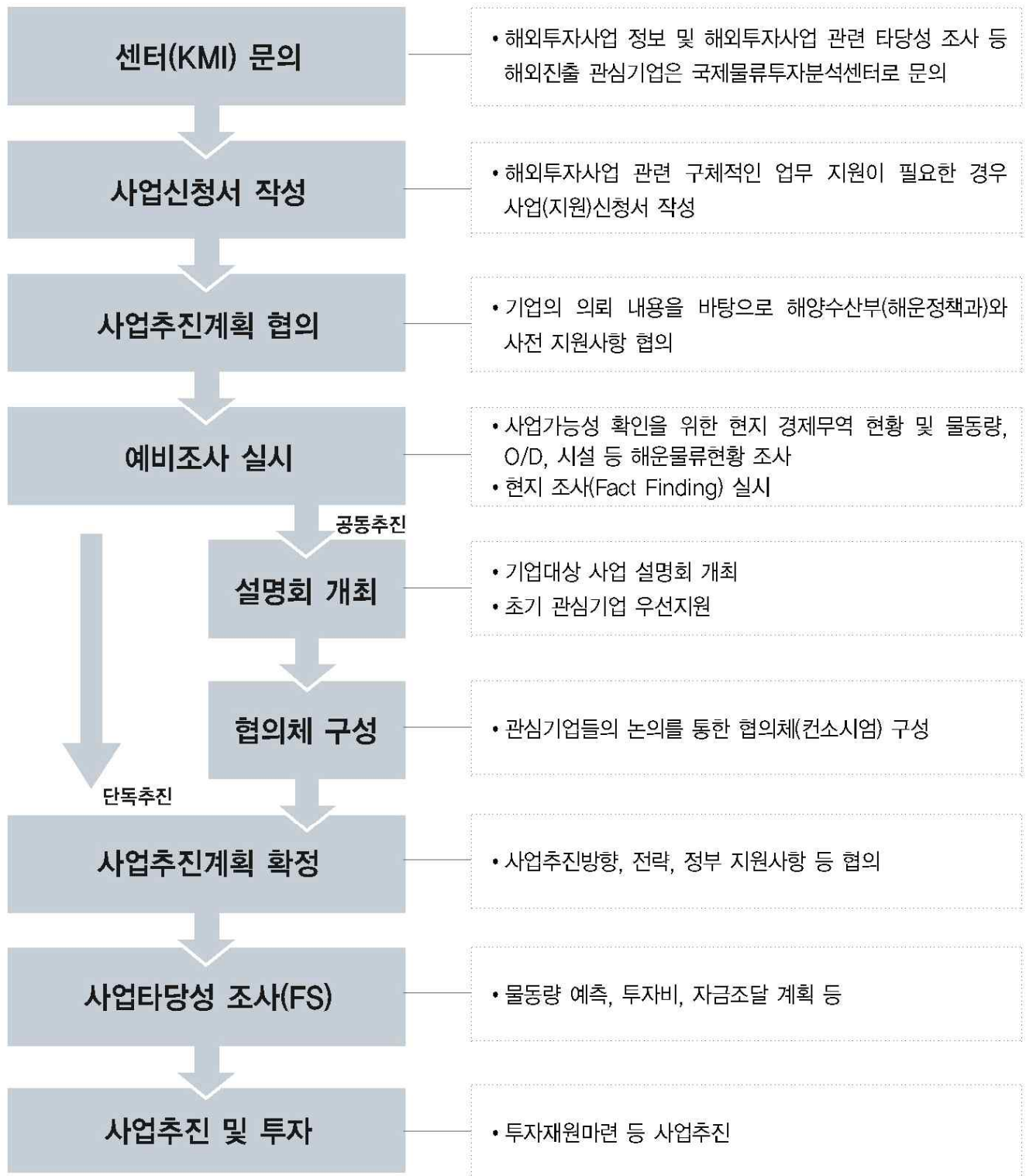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
 -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· 시급성 · 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·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· 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사업 추진절차

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